

불심시심 <64>

헛된 이름 그것은 나그네

枯木閑雲伴此身 (고목한운반차신) 마른나무 한가로운 구름은 이 몸의 짝
 夢寒青峯亂巖巖 (몽한청봉luanyanyan) 꿈에도 멀리한 기린각에 오른 벼슬
 清貧易得牛衣暖 (청빈이득우의완) 가난에는 쉽게 얻을 쇠덕의 따뜻함
 豪宕難忘蟻蝶春 (호宕난망안디첩춘) 호탕하면 잊기 어려운 술통 속의 봄
 庭前羅雀試啼寒 (정전라조시호한) 뜰비고 움성글어 여우는 손님 시험하고
 殿前推却鳥鴉人 (전전추척요야인) 법당 비고 처마 짙아 새는 사람 엿보다
 可憐世上功名者 (가련세상명망자) 가련타 세상의 이름 찾는 이
 不識浮華是實寶 (부식부화시실반) 헛된 이름 든 구름의 나그네임을 모르네
 (부식부화시실반)

설악선사가 성호(性浩)스 님에게 준 시이다. 스님이기에 저절로 어울리는 자연과 하나됨이 너무도 당연하지만, 이 시는 세속의 명리를 구하는 헛된 이름과 대비해서 스님의 처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더욱 실감나는 시가 되었다.

산사를 중심으로 자라는 나무가 굳이 고목일 리가 없지 않는 이 시에서 마른 나무로 첫 구절을 삼은 것은 어쩌면 스님의 고고한 그 자세를 우선 대비적으로 거론해서 앞으로의 시 구성에 자연스러움을 예비하는 작자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스님과 동반되어 있는 고독이요 한가로운 구름이다. 스님과 짝이 되었기에 한가로운 것이요. 그러나 형제(兄弟)로 상징되는 벼슬의 인연이나, 전한의 선제(宣帝) 때 기린각에 공신 11명을 새겼다는 이 영달이 꿈에서도 오히려 흠겨 느껴지는 것이 스님의 삶이다.

비록 이렇듯 없는 가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의 덕성은 쉽게 얻을 수 있고 이 덕성의 따뜻함이 오히려 근심없는 편안한 삶이고, 술통이여 떠있는 술지거미의 개미밥이 호탕을 사랑할 수 있는 산 속의 봄이다.

가진 것 아무 것도 없으니 뜰도 비었고 도적을 방비해야 할 일이 없으니 울타리가 성글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낮에도 산짐승이 내려와 나그네를 시험하고, 빈 집의 짙은 처마니 새가 날아와 사람의 있고 없음을 엿본다. 산사의 한적함을 여실하게 묘사한 시이다.

이런 정경과 대조되는 이산문 밖의 속세는 어떠한가, 사람 사람이 모두 명리를 찾기 위하여 분주하다. 그러나 이름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사람이라는 실제의 허상에 불과하다. 내가 주인이라면 이름은 나그네에 지나지 아니한다. 이 나그네를 그렇듯 좇고 있다 함은 나라는 실제가 부실하기에 이름인 것처럼 도장하려는 어리석은 보상심리인지도 모른다. 명리를 여고 티없는 자연과 이 또한 성호스님이 부럽다.

이중환 <동국대 교수>

“여권신장 종교역할 기대”

東大 한국문학연구소 ‘한국여성의 문학적 초상’ 세미나

‘여성문제는 바로 그 사회의 문제’라는 말처럼 90년대 들어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비평적 담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정치 이데올로기와 직결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 있어서 종교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장정일 윤대영 김원우 등 남성작가들의 작품과 대표적인 여성작가들인 식민지시대의 강경에 최정희부터 임옥민 박경리 손장순 박완서 김민옥 오정희 서영은 윤준모 이순 강경경 김향숙 신경숙 등의 작품들이 나타난 여성들의 이미지를 박해경(명지대) 서정자(초당대) 이태동(서강대) 이상경(경기대) 조남현(서울대) 권택영(경희대)교수 등이 각각 분석 발표했다.

이 남성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지만 대부분 제도에 순응하거나 모성으로서의 여성성을 긍정하고 있는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르면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은 △남성성과 대립하는 것 △행복을 위해 남성성과 일체감을 도모하는 것 △다른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 △모성으로 나타나 아들로서의 남성성을 포용하는 것 △남성들의 보조적인 기능을 자인한 것 등이다.

소설속 여성 ‘제도순응’ ‘정체성’ 두드러져 “불교 不二사상은 여성편견 해소 돌파구”

장정일 윤대영 김원우 등 남성작가들의 작품과 대표적인 여성작가들인 식민지시대의 강경에 최정희부터 임옥민 박경리 손장순 박완서 김민옥 오정희 서영은 윤준모 이순 강경경 김향숙 신경숙 등의 작품들이 나타난 여성들의 이미지를 박해경(명지대) 서정자(초당대) 이태동(서강대) 이상경(경기대) 조남현(서울대) 권택영(경희대)교수 등이 각각 분석 발표했다.

억압적인 한국사회의 여성의 구체적 현실자체를 문제삼고 있으며 그들의 정체성을 탐색 부각시키고 있다”면서 “여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남성들에 의해 억압받고 유린당하고 있지만 성(gender)을 초월한 생명력을 잉태해서 생성한 불문 우주의 모든 표상을 근원적인 차원에서 지배하는 힘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조남현교수는 산업화시대의 여성들

것 등이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한 홍기삼교수는 “여성신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여성문제에 소홀해왔다. 불이(不二)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불교가 이런 세미나를 계기로 여성문제에 본격 뛰어들어 옳은 방향으로 푸는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 지난 17일 열린 김교각展 개막식에서 교각스님이 신었던 지장혜를 관람하고 있는 조영복 동국대교수 이수성 국무총리 남시욱 문화일보사장 김영윤의원 석주·법흥스님(오른쪽부터).

지금 경북궁 민속박물관에선 신라왕자 김교각스님展

17일 ‘개막’... 11월 29일까지 전시

1200년만에 고국에 환성한 신라왕자 김교각展이 지난 17일 경북궁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갖고 개막했다. 석주(조계종 원로) 법흥(원효종 종장) 암도(전조계종 포교원장) 무구(수호사 주지)스님, 이수성 국무총리 김영윤의원 김영수 문화부장관 조유진 민속박물관장 남시욱 문화일보사장 등 정재종과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김교각추진위원회장 김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행사 준비 학술회의·10월 구화산순례 계획도

명운의원은 인사말에서 “가장 숭고한 육신불이 된 김교각스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번 전시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잃어버린 한 성인을 되찾는 일일 뿐 아니라 불자들의 신심을 다스리는 소중한 인연의 장”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문화부장관은 축사에서 “지장보살로 추앙받고 있는 교각스님을 이제야 한국에 모신 것은 만사지탄의 감이 있으나 이번 전시를 가짐으로써 교각스님의 위상을 새롭게 조명하고 불자들의 신심을 증장시키는 한편 1300년전

대학로 서울두레서 10월 2~13일 공연

늘이래 한두레와 극단 자갈치는 10월 2일부터 10월 13일 까지 대학로 서울 두레에서 원효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창작 마당극화한 ‘신새벽 술을 토하고’ 없는 길을 떠나다’를 공연한다 (공연 저녁7시30분, 토·

마당극 ‘신새벽 술을 토하고...’ 원효스님 구도의 삶 조명

일 4시 7시).

채희완씨(세계 마당극단체지회 ‘97경기’ 예술감독)가 연출하고 최태현씨(중앙대 교수)가 음악, 김봉준씨가 미술을 맡고 박정근씨의 안무로 펼쳐지는

불교를 머리로 이해하려는 사람에게서는 이 책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책을 보십시오.

“불화·조각등 65명 작품 공개합니다”

10월 8~27일 덕수궁 공중유물전시관서 문화재기능인작품전 여는 전홍수 회장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사랑하는 장인들이 과거 선조들이 기록해 놓은 업적과 문화유산을 보수 수리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불림히 갈고 닦은 기량으로 제작한 작품들을 선보임으로써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소중함을 널리 홍보하고자 회원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는 10월 8일부터 27일까지 덕수궁내 공중유물전시관에서 제3회 ‘문화재수리기능인작품전’을 여는 (사)한국문화재보전수리기능인협회 전홍수회장(59)은 이렇게 설명하며 많은 이들이 와서 보고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번 작품전에는 전홍수회장 등 65인 회원들의 조각 불화 공예 등 130여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아시아 1인극 대가 ‘한 자리에’ 공주서 10월4-6일 공옥진씨등 13명 참가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씨 판소리 명창 박동진씨 타악기연주자 김대환씨 판타미임 최규호씨 등과 일본의 고규미 인도의 아소 타 차첼리, 중국의 왕대순씨 등 아시아의 1인극 대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오는 10월4일부터 6일까지 공주공연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제7회 아시아 1인극제에는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서 활동중인 증진에 참가해 각 나라의 전통예술을 바탕으로 오늘의 이야기들을 담은 다양한 개성을 보여준다. 공옥진씨는 심청전의 애

아시안 춤의 대가 공옥진씨

다른 사연을 특유의 춤으로 풀어내고, 인간문화재 박동진씨는 ‘진국명산’을, 김대환씨는 ‘홀소리’를 연주하며, 최규호씨와 이두성씨가 무연극 ‘먹고 삼시다’와 ‘새 새 새’를 공연한다. (02)736-6818.

이탈한 사연을 특유의 춤으로 풀어내고, 인간문화재 박동진씨는 ‘진국명산’을, 김대환씨는 ‘홀소리’를 연주하며, 최규호씨와 이두성씨가 무연극 ‘먹고 삼시다’와 ‘새 새 새’를 공연한다. (02)736-6818.



전홍수 회장은 평생을 고건축과 함께 해온 도편수로 수석사승 전국의 문화재보전 수리에 지난 35년간 참여해왔다. 문화재 수리에 평생을 바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28일 정부로부터 공로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기원

공보처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제1회 ‘사진으로 본 한국 한국인’ 사진 공모전에서 한국인의 생명력을 포착한 ‘담소(임계환 작)’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세계일류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불교소재 ‘기원(전현오 작·사진)’이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101점이 입상(총 2993점 응모)했다. 시상식은 10월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며 입상작품은 10월7일~15일 세종문화회관 제1전시실에서 전시된다.



‘한국의 소리와 몸짓’ 다섯번째 무대이자 ‘굿과 법패’ 시리즈의 마지막 공연인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식당작법이 지난 15일 예술의전당내 한국정원에서 펼쳐졌다.

송암 벽을 일으켜 지광스님과 영산재 보존회 일운 구해성오 윤봉 성일 동회 법현스님 등 20여 스님이 참여한 불교전통의식 영산재의 화려하면서도 장엄한 모습에 1천여 관객들은 찬탄을 금치 못했다.